

茶山 『尙書古訓』의 훈고학적 접근

변은미 *

-
1. 서론
 2. 다산의 훈고학
 - 1) 훈고학의 개념과 역사
 - 2) 다산의 훈고학 인식
 3. 『尙書古訓』의 훈고학적 접근
 - 1) 다산의 『尙書』 연구
 - 2) 『尙書古訓』의 훈고학 방법론
 4. 결론
-

■ 국문요약

『尙書古訓』은 다산 정약용이 가장 오랫동안 공을 기울인 저작이자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고 계속 수정한 저술로 알려져 있다. 다산은 강진 유배기 때 자신의 초기 상서학 3부작인 『梅氏書平』, 『古訓蒐略』, 『尙書知遠錄』을 저술하였고, 해배 이후 『梅氏書平』을 개수하고 『古訓蒐略』, 『尙書知遠錄』을 합본한 『尙書古訓』을 완성하였다.

본고는 『고훈수략』, 『상서지원록』을 『상서고훈』과 대조함으로써 다산의 훈고학적 접근방식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상서고훈』으로 합편하는 과정에서 다산이 어떤 자료를 취사했는지를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논지를 전개하였는지를 「堯典」 1장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 Email: di0567@hanmail.net

다산은 기본적으로 古訓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진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역시 견지하고 있었다. 『상서』 훈고 작업의 목적은 ‘存古’임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옛것을 바르게 안 바탕에서 지금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습本 과정에서 원문의 순서에 맞게 재배치 한 부분, 斷句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표시한 부분, 서명 표시를 확실히 한 부분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점은 기존 저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부분이다. 새로운 학설을 추가로 제시한 부분 역시 살펴볼 수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閻若璩의 견해를 제시하며 자신의 안설을 뒷받침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주목된 부분은 古訓의 오류를 분석한 부분이다. 다산은 鄭玄이나 다른 한대 훈고학자들의 주석 가운데 본인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빼지 않고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 고훈의 증거력이 부족하더라도 고훈인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다산의 태도가 드러난다.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편찬하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자료를 『상서고훈』에서 보완하며 기존 훈고의 오류를 반박한 부분 역시 확인하였다. 여기서 다산 자료운용의 실제 면모를 볼 수 있다.

주제어: 정약용, 『상서』, 「요진」, 『상서고훈』, 훈고학

1. 서론

『尙書』는 경서 가운데 가장 殘缺이 많은 책이자 진위여부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았던 저술이다. 『古文尙書』의 진위여부 논쟁은 清代에 와서야 완결되는데, 그 배경에는 청대 고증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즉, 『상서』라는 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는 고증적 연구 방식이라는 청대 학술 경향에 힘입어 일단락된 것이다. 『상서』라는 책의 온전한 이해

를 위해 고증학이라는 학문적 방법론이 요구되었으며, 『상서』의 여러 논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증학이 발전했다고도 할 수 있다.

茶山 丁若鏞 역시 이러한 청대 고증학의 학술 성과를 수용한 바탕에서 자신의 尙書學을 발전시켰다. 정약용의 『상서』 연구는 유배기와 해배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1808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초기 상서학 3부작인 『梅氏書平』, 『古訓蒐略』¹⁾, 『尙書知遠錄』을 저술하였고,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매씨서평』을 改修하고 『상서고훈』, 『상서지원록』을 합하여 『尙書古訓』을 편찬하였다.

유배기인 1810년에 첫 번째로 완성한 『매씨서평』은 東晉의 梅賾이 조정에 올린 『古文尙書』 58편 가운데 25편이 僞書임을 논증한 저술로, 『고문상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특히 『고문상서』를 옹호한 毛奇齡의 『古文尙書冤詞』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산은 이어서 『今文尙書』를 대상으로 훈고 수집 작업에 착수하여 『고훈수략』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추가해서 1811년에 완성한 책이 바로 『상서지원록』이다. 『고훈수략』이 여러 훈고 자료를 수집해놓은 책이라면, 『상서지원록』은 이를 바탕으로 다산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 책이다.

유배기 때 자신의 초기 상서학 3부작을 완성한 다산은 해배 이후 閻若璩의 『尙書古文疏證』을 보게 되고, 자신과 거의 일치하는 의견을 개진한 저술이 앞서 나왔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이후 당시의 상황을 술회한 글에서 “내 책은 없애버려도 좋겠다.”라는 실망 섞인 말을 내뱉기도 하였다.²⁾ 매색의 『고문상서』가 위작임이 엄약거에 의해 밝혀졌고 이후 여러

1) 『古訓蒐略』의 원래 서명은 『尙書古訓』이다. 다산이 노년기에 상서학을 완결하면서 저술한 합본의 서명 역시 『尙書古訓』이므로, 『古訓蒐略』 또는 『尙書古訓蒐略』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해당 책의 서명을 『古訓蒐略』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2) 『與猶堂全書』 經集 卷32, 『梅氏書平』, 『閻氏古文疏證百一抄』, “余書今廢之, 可矣.”

청대 학자들이 엄정한 고증으로 해당 논의를 발전시켰는데 자신은 이를 보지 못했음에 절망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중국 밖 구석진 나라에 있는 나의 고루한 견해가 중화의 뛰어난 학자의 견해와 서로 상의 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았구나.’라고 생각했다.”³⁾ 등의 언급을 보면, 자신이 염약거의 『상서고문소증』을 보지 못했음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자신의 학문에 대한 자부심 역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⁴⁾

본고는 『고훈수략』, 『상서지원록』을 『상서고훈』과 대조함으로써 다산의 훈고학적 접근방식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상서고훈』으로 합편하는 과정에서 다산이 어떤 자료를 취사했는지를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논지를 전개하였는지를 『堯典』 1장을 대상으로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훈고학을 연구하려는 시도에서 기인하였다. 자료 활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고 성리학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지 못했던 조선의 학술 풍토에서, 이러한 몇몇 제한점을 딛고 어떻게 훈고학적 접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배태된 새로운 특징은 없는지 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서, 다산의 훈고학적 접근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김언중은 “다산의 경학 저술은 청대 초엽까지의 훈고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이에 더한 탈성리학적이자 독창적인 의리학으로 완성된 것이다.”⁵⁾라고 하였으며, 심경호는 “다산 정약용은 필롤로지의 방법

3) 같은 글, “竊自幸海外僻陋之見, 得與中華大方之家, 不謀而同.”

4) 다산의 이러한 탄식은 『상서』에 대한 청대의 우선권 논쟁과도 관련있다. 연구의 방법이 복잡해지고 수많은 연구자의 관심이 특정한 주제에 집중되었던 청대의 학술 풍토에서 연구 결과의 우선권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고문상서』에 대해 17세기의 염약거, 18세기 중반의 惠棟, 18세기 말의 崔述은 각자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러한 현상에 있어 우선권 논쟁이 존재하였다. 벤자민 엘빈 지음, 양휘웅 옮김(2004) 422~426면 참조.

5) 김언중(2012), 37면.

론을 활용하여 인간학의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⁶⁾라고 하며 다산 훈고학을 설명한 바 있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우선 훈고학이라는 학문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훈고’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훈고학을 둘러싼 중국의 학술사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다산 정약용의 훈고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상서』 「堯典」 1장에 대한 『고훈수략』, 『상서지원록』과 『상서고훈』의 내용을 대조함으로써 다산의 자료 활용과 立說 방식을 검토하였다.

정약용의 훈고학에 대해서는 『맹자요의』와 『매씨서평』에서 보이는 훈고학적 성격에 대한 고찰⁷⁾, 다산 경학의 훈고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⁸⁾가 이루어졌다. 특히 심경호는 문헌학적 연구방법을 문자학·음운학·훈고학 등의 小學과 학문계보학인 目錄學을 포괄하는 학문 영역으로 규정하고, 다산의 문헌연구 방법은 반드시 모기령 이후 청나라 고증학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며 그 방법은 훈고학의 발달사와 조선 경학의 전개 과정에서 배태된 것이기도 했다고 분석하였다.

정약용의 상서학에 대한 연구로는 다산 상서학 저술에 대한 분석⁹⁾, 서지학적 고찰¹⁰⁾, 상서론 연구¹¹⁾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약용의 『상서고훈』에서 보이는 훈고학적 특징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6) 심경호(2012), 8면.

7) 정병련(2000); 김소영(2019).

8) 박상제(2002); 양원석(2007); 심경호(2012).

9) 김문식(2013); 김성재(2018).

10) 김보름(2021); 김성재(2021).

11) 김언중(2012); 임현규(2015); 진역령(2016).

2. 다산의 훈고학

1) 훈고학의 개념과 역사¹²⁾

訓詁라는 용어는 본래 連用되는 두 개의 單音詞였다. 訓은 ‘설명하고 가르치다.’라는 뜻이고, 詁의 본의는 ‘옛말’인데 引伸되어 ‘옛말을 해석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두 단어 간의 의미상 차이에 대해서는 역대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달랐지만, 여러 논의를 종합하여 훈고의 논의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訓과 詁는 나누어 말하면 모두 ‘해석’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를 해석하는 것을 한 글자로 ‘고’나 ‘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훈고’나 ‘고훈’이라고 할 수도 있다.

訓과 詁를 합하여 말하면 ‘옛말을 해석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훈’과 ‘고’는 동사, 명사의 용법을 겸하며, 詁는 옛 글자에서 故와 통한다. 그러므로 ‘옛말을 해석한다.’ 또는 ‘옛말의 해석’이라 할 수도 있다.¹³⁾

訓詁學은 훈고와 관련한 모든 작업을 포괄하는 학문이다. 훈고의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가 파생되는데, 이를 통틀어 훈고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훈고의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론인 形訓, 義訓, 聲訓과 이를 둘러싼 한자학 이론, 훈고 저술과 주석, 그리고 이러한 훈고 자료의 활용까지 모두 훈고학의 영역에 포함된다.

훈고학은 고대의 저작에 담긴 古語와 지금 사용하는 용어 간의 의미적 괴리가 발생함으로써, 고어의 本義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특히 秦나라의 焚書坑儒 이후 漢나라 때 이를 복원하기 위한 방

12) 해당 절은 전광진 編譯(1993), 242-267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3) 周大璞 지음, 정명수·장동우 옮김(1997) 참조.

법론으로 사용되면서 크게 발전하였으므로, 漢代의 학술 경향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훈고학은 좁은 의미로는 한대의 학술 경향을 지칭하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온 해석 방법론이다.¹⁴⁾

훈고학은 春秋戰國시대에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언어가 발전되어 시대적 차이와 방언적 차이가 생겼으며, 서면언어와 구두언어의 낱말이 달라졌다. 또한 사회의 발전으로 名物이 번다해져서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낱말을 통해 사유를 전개하는 경향도 발전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훈고학이 흥기하였다.

이후 兩漢시기에는 진나라 때 분서갱유의 영향으로 先秦시대의 고적들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훈고학자들은 경전에 주석을 달면서 올바른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전문 훈고 서적들이 간행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저서로는 『爾雅』, 『方言』, 『說文解字』, 『釋名』이 있다.

14) 훈고학이라는 학술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훈고학과 고증학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유사성이 있으므로 두 용어가 변별되는 지점을 서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통 시대성을 지닌 좁은 의미로는 '한대의 훈고학', '청대의 고증학'을 가리키는 말로 '훈고학'과 '고증학'이 쓰였다. 한대에 분서갱유로 인해 훼손된 경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자구의 의미를 밝히는 훈고 작업들이 집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학문 경향을 '훈고학'이라고 하고, 청대에 한대 훈고학의 방법론을 숭상하면서 발전하게 된 학문 분야를 '고증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성을 넘어선 넓은 의미로는 자구의 의미를 해석하는 모든 작업을 '훈고학'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고증학' 역시 객관적이고 실증적 방법론을 수행하는 학문 영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범위에서는 훈고학이 고증학의 한 하위 갈래로 분류될 수 있으며, 훈고학은 고증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자구의 해석을 위주로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고증학은 '교감학', '고음학', '훈고학', '목록학', 심지어 '친문학', '수학' 등의 실증적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도 쓰이게 된다. 이러한 학문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심경호(2012)는 '필롤로지(philology)'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문헌학적 연구방법을 문자학·음운학·훈고학 등의 小學과 학문계보학인 目錄學을 포괄하는 학문 영역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넓은 의미에서의, 즉 훈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들을 통틀어 '훈고학'의 범위에 넣었고, '훈고학적 접근'이라는 용어 역시 그러한 훈고 작업들이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魏晉南北朝시기에는 郭璞의 『爾雅注』와 『方言注』, 隋唐시대에는 孔穎達의 『五經正義』를 대표적인 훈고학 저술로 꼽을 수 있다. 이 저술들은 이전 시대의 주석을 취사선택하고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더하여 많은 훈고 자료를 회집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宋元明시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해 훈고학 방면의 연구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鍾鼎彝器 연구와 文字學 연구의 발전으로 인해 본격적인 한자학 이론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후 清代에는 고증적 학풍이 일면서 한대의 훈고학을 극력 숭상하였다. 특히 『爾雅』와 『說文』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를 연구한 중요 저작들이 많이 생겨났다. 청대의 훈고학은 古音學의 성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언어와 문자의 관계를 확실히 밝히면서 聲音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훈고와 성음의 관계를 언급한 대표적인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戴震: 훈고와 음성은 서로 표리 관계에 있다.¹⁵⁾

王念孫: 내 생각으로는 훈고의 본지는 聲音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발음은 같은데 글자는 다른 것이 있고, 발음이 비슷하고 뜻이 같은 것이 있다. 간혹 어떠한 부류로 모아지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맥락이 같은 것이다.¹⁶⁾

段玉裁: 성인이 글자를 만듦에 있어서는 먼저 뜻이 있고 난 뒤에 음이 있었고, 음이 있는 후에 형태를 만들어냈다. 학자가 글자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형태를 보고서 그 음을 알아내고, 그 음을 가지고

15) 戴震, 『六書音均表』 「六書音均表序」, “訓詁音聲, 相爲表裏.”

16) 王念孫, 『廣雅疏證』 「廣雅疏證 自序」, “竊以訓詁之旨, 本於聲音. 故有聲同字異, 聲近義同, 雖或類聚群分, 實亦同條共貫.”

그것의 뜻을 찾아내야 한다. 경전을 읽을 때 뜻을 찾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뜻을 구할 때 소리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없다.¹⁷⁾

청대 학자들의 훈고학적 성과는 매우 컸지만 이에 대한 결점 역시 지적되었다. 첫째로, 『설문』을 지나치게 믿었다는 점이다. 『설문』의 글자가 모두 本義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문』의 풀이만을 맹신하였지만, 이후 출토된 갑골문이나 금문에 의해 많이 반박되었다. 둘째로, 훈고 해석에 음의 轉變을 너무 무리하게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古語의 본의를 무리하게 풀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훈고학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19세기에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고증학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18~19세기 청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한 어려움은 고증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비이론적'이고 '비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의식을 야기하였다.¹⁸⁾

2) 다산의 훈고학 인식

茶山 丁若鏞은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학자이자 경전 해석에 있어 다양한 創見을 제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본적으로 정약용의 경전해석법은 의리와 훈고의 측면을 겸했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五學論」을 지어서 당대의 다섯 가지 주요 학문 경향인 性理學, 訓詁學, 文章學, 科擧學, 術數學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물론 「五學論」에는 다섯 학문의 폐단에 대한 비판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성리학과 훈

17) 段玉裁, 『廣雅疏證』 「廣雅疏證序」, “聖人之制字有義而後有音, 有音而後有形. 學者之考字, 因形以得其音, 因音以得其義. 治經莫重於得義, 得義莫切於得音.”

18) 청대 고증학 비판과 관련된 여러 논의는 벤자민 엘먼 지음, 양휘웅 옮김(2004) 「대단원」 부분 참조.

고학 부분은 나머지 세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각 글의 서두를 보면 분명하게 보인다.

性理學은 도를 알고 자신을 알아서 올바른 도리를 실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¹⁹⁾

訓誥學은 경전의 글자 뜻을 밝혀 道學과 名敎의 지취를 알게 한다.²⁰⁾

文章學은 吾道의 큰 해독이다.²¹⁾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배우가 연극을 하는 것과 같은 기교로 온 천하를 통솔하는 것이 科擧學이다.²²⁾

術數學은 학문이 아니라 미혹하는 술책이다.²³⁾

문장학, 과거학, 술수학을 학문 그 자체로 비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리학과 훈고학에 대해서는 각 학문이 가지는 의의를 먼저 서술하였다. 즉, 성리학과 훈고학의 경우 학문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산은 성리학과 훈고학을 제대로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19) 『與猶堂全書』文集 卷11, 「五學論 一」, “性理之學, 所以知道, 認己以自勉, 其所以踐形之義也.”

20) 같은 책, 「五學論 二」, “誥訓之學, 所以發明經傳之字義.”

21) 같은 책, 「五學論 三」, “文章之學, 吾道之鉅害也.”

22) 같은 책, 「五學論 四」, “主斯世而帥天下以倡優演戲之技者, 科擧之學也.”

23) 같은 책, 「五學論 五」, “術數之學, 非學也惑也.”

지금의 학자는 한나라 학자들의 주석을 고증하여 훈고를 찾고 주자의 집전을 가지고 의리를 찾는다. 시비와 득실 또한 반드시 경전을 통해 결정한다면, 육경사서는 본래의 뜻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확신하게 되고 처음에는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바로 통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된 뒤에야 체득하여 행하게 되고 행하여 증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로는 몸을 닦고 집을 다스려 국가와 천하까지 다스릴 수 있고 위로는 하늘의 덕에 통달하여 천명을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학문인 것이다.²⁴⁾

위의 글을 통해 정약용이 훈고학과 의리학의 절충을 경전해석의 방법론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²⁵⁾

정약용은 기존 훈고학이 가진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였다.

秦始皇의 분서갱유 이후로 스승에게서 학문을 전수받는 일이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漢武帝 이후 처음으로 五經博士를 學官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門戶가 설립됨에 따라 支派가 나누어졌다. 이후 위진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름난 학자가 무더기로 배출되었고, 孔穎達과 賈公彥에 이르러 註疏로 경전을 해석하게 되자 천하 사람들이 바람에 쓰러지듯 이를 받들었으니, 성대하다고 할 만하였다. 그러나 전수된 훈고가 모두 본래의 뜻이라고 기필할 수는 없고, 본래의 뜻을 터득한 것이라 해도 글자의 뜻만 밝히고 구두를 바르게 끊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는 선왕(先王)과 선성(先聖)의 도학과 명

24) 같은 책, 「五學論 二」, “今之學者, 考漢注以求其詰訓, 執宋傳以求其義理, 而其是非得失, 又必決之於經傳, 則六經四書其原義本旨, 有可以相因相發者, 始於疑似而終於真的, 始於彷徨而終於直達. 夫然後體而行之, 行而驗之, 下之可以修身齊家爲天下國家, 上之可以達天德而反天命, 斯之謂學也.”

25) 훈고학과 성리학이란 넓은 의미로는 어느 시대에나 사용되었던 경전해석 방법론이기도 하면서 좁은 의미로는 한대 훈고학, 송대 성리학, 즉 특정 시대의 학술 경향을 가리키기도 한다. 정약용은 이 두 가지를 겹쳐서 사용하면서도, 좁은 의미로의 한대 훈고학과 송대 성리학 각 부분에만 치우쳐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의 근원에 대해 그 깊은 뜻을 엿보아 규명할 수가 없었다. …… 지금의 훈고학이라는 것은 漢나라와 宋나라의 것을 절충한다는 명분은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한나라의 것만을 존중하고 있을 뿐이다. 또 宮室과 蟲魚에 대해 훈고하여 글자의 뜻만 통하게 하고 구두만 끊었을 뿐이고, 성명의 이치나 효제의 가르침이나 예악형정의 문장에 대해서는 진실로 어둡다. 송나라 때의 학문이 반드시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필코 몸과 마음으로 이를 체행하여 행하려는 자세는 옳다. 지금은 장구만을 훈고해서 같고 다름에 대한 연혁만 고찰할 뿐 是非와 邪正을 판별하여 체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으니, 이것은 또 무슨 법이란 말인가. 26)

우선 주목할 부분은, 정약용이 훈고학이 가진 한계점을 인식했다는 점이다. 정약용은 ① 한대에 전수한 훈고가 본래의 뜻이라고 기필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② 본래의 뜻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훈고학은 단순한 글자 뜻풀이와 자구의 해석에만 머물러있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훈고에만 얽매이는 경전해석 방법이 아니라 송대의 의리학과 절충하면서 是非와 邪正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산의 경전해석법에는 기존 훈고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서의 새로운 훈고학적 해석방법이 주요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성리학과 훈고학의 절충이라 할 수 있다. 27)

다음으로는 다산이 실제 『상서』 해석에 있어서 훈고의 역할을 직접적

26) 『與猶堂全書』文集 卷11, 「五學論 二」, “秦燔之厄, 師承遂絕. 武帝以來, 五經始有官學. 門戶既立, 枝派以分, 下逮魏晉, 名儒林立, 至孔穎達, 賈公彥爲之疏釋, 而天下靡然宗之, 可謂盛矣. 然其詁訓之所傳受者, 未必皆本旨. 雖其得本旨者, 不過字義明而句絕正而已. 于先王先聖道教之源, 未嘗窺其奧而溯之也. …… 今之所謂詁訓之學, 名之曰折衷漢宋, 而其實宗漢而已. 詁宮室訓蟲魚, 以之通其字絕其句而已. 于性命之理, 孝弟之教, 禮樂刑政之文, 固昧昧也. 宋未必盡是, 而其必欲體行於心與身則是矣. 今也唯詁訓章句其異同沿革, 是考是察, 曾不欲辨是非別邪正, 以求其體行之術, 斯又何法也.”

27) 물론 성리학과 훈고학의 절충이라는, 다소 일반론적인 결론 앞에서 다산의 경전해석 방법론을 면밀히 따져보고 사례를 통해 실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고, 본고의 연구목표도 그것이다.

으로 언급한 글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尙書知遠錄序說」의 한 부분이다.

나는 글을 읽는 방법은 반드시 詰訓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훈이란 ‘글자의 뜻[字義]’이다. 글자의 뜻이 통한 뒤에야 구절이 풀리고, 구절의 뜻이 통한 뒤에야 장의 뜻이 밝혀지고, 장의 뜻이 통한 뒤에야 편의 대의가 드러난다. 여러 경서가 다 그러하지만 『상서』가 더욱 그러하다. 내가 먼저 고훈에 힘쓴 이유가 이 때문이다. -먼저 고훈을 모은 일을 말한다. - 후세에 경서를 말하는 선비들이 글자의 뜻을 알지 못하고서 먼저 의론을 일으켰으므로 심미한 뜻을 논하는 말이 길면 길 수록 성인의 본뜻은 더욱 어두워졌다. 터럭만큼의 차이로 마침내 연라나와 월나라처럼 멀어지고 말았으니, 이는 經術의 큰 장애이다. …… 후세의 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古訓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스스로 일가를 이룬 후에는 반드시 전시대의 고훈을 없애버렸다. …… 자구를 훈고함은 그 목적이 옛날 제왕의 사적을 알려는 데 있다. 알아서 무엇 하는가? 오늘에 시행하려는 것이다. ……28)

다산은 詰訓을 정의하고, 경서를 읽을 때 우선해야 하는 작업이라 하였다. 특히 『상서』의 경우 더욱 그렇게 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훈수략』을 만들면서 우선 古訓을 모으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였다. 또한 古訓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구를 훈고함으로써 옛 사적을 알고 그것을 오늘 시행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오학론」에서 다산이 훈고학에 대해 지적한 ②의 내용과 일치한다. 훈고 작업을 하는 것이 단순히 글자 뜻풀이와 자구 해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8) 같은 책, 經集 卷21, 『尙書古訓』 「尙書知遠錄序說」, “余惟讀書之法, 必先明詰訓. 詰訓者, 字義也. 字義通而后句可解, 句義通而后章可析, 章義通而后篇之大義見, 諸經盡然而書爲甚. 余所以先致力於詰訓者, 此也. 【謂先蒐古訓】 後世談經之士, 字義未了, 議論先起, 微言愈長, 聖旨彌晦, 毫釐既差, 燕越遂分, 此經術之大蔽也. …… 後世解經, 不得不依據古訓, 而自成一家之後, 必掃盪前古. …… 詰字訓句, 歸知遠古帝王之事而已. 知之奈何? 將以施諸今也. ……”

나는 歐陽生·夏侯氏·馬融·鄭玄의 설이 모두 경의 본뜻과 아주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잠박하고 틀린 내용도 분명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옛것을 믿고 좋아하는 것은 성인의 뜻이다. 지금 것이 비로 정교하더라도 예전 것의 졸박함만 못할 것이다. …… 이는 감히 옛것이 옳고 지금 것이 그르다는 말이 아니라, 다만 없어지는 것을 보존하고 끊어진 것을 이으려는 것이다. ……²⁹⁾

이 글에서는 古訓에 대한 다산의 태도가 드러난다. 먼저, 한대의 훈고라고 해서 모두 경의 본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한대에 전수한 훈고가 반드시 본래의 뜻이라고 기필할 수 없다는 「오학론」 ①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것을 믿고 좋아해야 하며, 없어지는 것을 보존하고 끊어진 것을 잇기 위해 古訓을 함께 수록하였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尙書古訓知遠錄合編序說」, 「尙書古訓凡例」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두 책을 합한 것인데도 제목을 그대로 『尙書古訓』이라고 한 것은, 새로운 설을 덧붙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古訓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다. ……³⁰⁾

여덟째, 이 책을 지은 것은 옛것을 보존하기 위해서이지 경을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구의 훈고에 간혹 전부를 빠뜨린 것이 있고, 의리에 대한 시비 또한 전부를 해석한 것은 없다. 이는 蔡沈의 註가 좋다고 여겨서이다. 채침의 주에 대해서는 간혹 틀린 것이

29) 같은 곳, 「古訓蒐略序說」, “余惟歐陽夏侯馬鄭之說, 未必皆深中聖旨, 駘駘紕繆者, 固亦不少, 然信而好古, 聖人之義也. 今者雖工, 不如古拙. …… 非敢是古而非今, 只欲存亡而繼絕. ……”

30) 같은 곳, 「尙書古訓知遠錄合編序說」, “書雖兩合, 仍名之曰尙書古訓, 蓋新說雖附, 猶以古訓爲主也.”

있을 때에야 논변하였고, 훌륭한 점이 있을 때는 표장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수록하지 않았으니, 채침의 주가 지금 널리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梅蹟의 주에 비록 오활하고 치우친 점이 많으나 다 자세히 논하지 않은 것은 세상에서 쓰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훈에 대해서는 비록 가려져 있고 비루하여 전혀 쓸데가 없더라도 다 수록해두었다. 본래의 뜻이 옛것을 보존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³¹⁾

『상서고훈지원록합편서설』에서 다산은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합한 새 저술을 옛 이름 그대로 『상서고훈』이라 한 이유는, 여전히 古訓, 즉 한대의 훈고를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서고훈범례』에서 이 책을 지은 것은 ‘옛것을 보존하기 위함[存古]’임을 두 번이나 밝혀두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다산의 훈고자료 운용 법칙을 정리하자면, 다산은 기본적으로 古訓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역시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서』라는 경학 텍스트에 대한 훈고 작업의 수행 목적은 ‘存古’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存古’는 『상서지원록』의 ‘知遠’과도 같은 의미이다.

물론, 상서라는 책이 가장 잔결이 많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다른 경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存古’의 측면을 더욱 강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산은 결국 存古를 해야 옛것을 제대로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古訓이 절대적인 증거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중시하였으며, 存古라는 목적 하에 궁극적으로는 현재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31) 같은 곳, 「尙書古訓凡例」, “一. 是編之作, 爲存古也, 非釋經也. 故字句訓詁, 或有全缺, 義理是非, 亦無全釋者, 概以蔡註爲善也. 蔡註或有錯誤, 方有論辨, 或有卓異, 方有表章, 餘皆不錄, 爲方行世也. 梅註雖多迂僻, 皆不細論, 爲非時俗所用也. 至於古訓, 雖蔽冒舛陋, 百無可取, 悉錄之, 爲本意在於存古也.”

해당 내용의 논지는 다소 모순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산은 漢代의 고훈을 존중하였지만, 새로운 학설과의 비교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옛것을 존중한 것이지, 옛것이 옳고 지금 것이 그르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말에서도 이 점이 드러난다.³²⁾

이상과 같은 다산의 훈고학적 접근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자료가 한정되었던 유배기 때 완성한 두 저술 『고훈수략』, 『상서지원록』과 해배기 이후 새로운 학설들을 수용한 바탕에서 보완하여 저술한 『상서고훈』을 비교 검토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요전」 1장을 대상으로 이 작업을 시도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유효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3. 『尙書古訓』의 훈고학적 접근

1) 다산의 『尙書』 연구

본고의 주 연구 대상은 『尙書古訓』이고, 이에 대한 일차적 저술로서 존재하는 『古訓蒐略』, 『尙書知遠錄』을 함께 대조할 것이다. 이 작업을 위해 우선 각 서종별 이본을 소개하고,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선본과 그 선정 이유를 설명하겠다. 각 서종별 이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³⁾

32) 청대 고증학의 기조인 '復古'와 다산 정약용의 '存古'는 어느정도 일치하는 목적성을 가지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33) 각 서종별 이본 현황에 대해서는 김문식(2007)과 김성재(2021)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였다.

『古訓蒐略』 6권 2책	『尙書知遠錄』 7권 3책	『尙書古訓』 3권 1책
①가장본: 1책(4~6권)만 존재 ②쓰쿠바대본: 6권 2책 ③규장각본: 6권 2책	①가장본: 2책 (권4~7, 「상서지원록목차괄의」) ②여유당전서보유본: 7권 ③버클리대본: 7권 3책 ④규장각본: 7권 3책 ⑤신조선사본: 7권 3책	①신조선사본: 3권 1책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본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토 기준을 정하였다.

『고훈수략』의 경우 ‘①가장본’에는 권1-3이 없으므로 ‘③규장각본’을 우선으로 검토하였다. 『상서지원록』과 『상서고훈』은 定本에 있는 대본을 우선으로 하되, 『상서지원록』은 ‘①가장본’과 거의 일치한다고 알려진 ‘②여유당전서보유본’과 ‘④규장각본’을 함께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다산의 훈고 자료 운용 원칙을 서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다. 『상서고훈』의 卷首에는 「尙書古訓序例」가 있는데, 「古訓蒐略序說」, 「尙書知遠錄序說」, 「尙書古訓知遠錄合編序說」, 「尙書古訓凡例」와 「尙書序」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여기서 살펴볼 것은 「고훈수략서설」, 「상서지원록서설」, 「상서고훈지원록합편서설」, 「상서고훈범례」로, 해당 글에는 각 저술의 편찬 목적과 자료 취사에 관한 다산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고훈수략서설」과 「상서지원록서설」의 내용이다.

五經 가운데 『상서』가 잔결이 가장 많은데 그 가운데 다행히도 없어지지 않은 것이 오직 28편이다. 바로 복생이 벽 속에 감춰 두었다가 今文으로 옮겨 쓴 것으로 歐陽生과 大夏侯氏·小夏侯氏 三家의 해설이

있었다.

또 공자 옛 집의 벽 속에서 나온 『古文』에 대해서는 馬融과 鄭玄 두 사람의 주석이 있었다. 그런데 복생의 학은 永嘉의 난 때 망실되었고 孔安國의 학은 당나라 때 망실되었다. …… 오직 孔穎達의 『尙書正義』나 다른 경의 注疏에 구양생·하후씨·마응·정현의 설을 인용한 부분이 간혹 있어 때때로 그 일부를 볼 수 있는데, 주나라의 寶鼎이나 은나라의 禮器처럼 광채가 찬란하다. 이에 한두 文友와 서둘러 채집하고 엮었다. 또 『史記』나 『說文』 같은 책에 실려있는 『상서』의 문구를 찾아 모아서 동이점을 살펴보았으며, 『春秋左氏傳』·『國語』·『禮記』·『論語』·『孟子』에서 간혹 『상서』를 인용한 내용-28편을 인용한 것-이 있으면 역시 채록하였다. 그것을 차례대로 편집하고 간간히 나의 견해를 덧붙여 취사하는 뜻을 보였다. 이를 합하여 『古訓蒐略』이라고 하니, 모두 6권이다.³⁴⁾

나는 매색·채집 두 사람의 설과 남아 있는 고훈을 가지고 동이점을 고찰하고 이리저리 자세히 조사하였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옛것을 옳게 보고 지금의 것을 틀렸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옛 뜻을 버리고 새 뜻을 취하기도 하였다. 여러 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나의 견해를 덧붙이고, 나머지 의문점은 그대로 남겨서 孔子의 가르침을 따랐다. ……³⁵⁾

다산은 『고훈수략』에서 漢代 구양씨, 하후씨, 마응, 정현의 주석을 채집하고 엮었다고 하였는데, 그 광채가 찬란하다고 한 부분에서 고훈을

34) 『與猶堂全書』經集 卷21, 『尙書古訓』「古訓蒐略序說」, “五經之中, 尙書最受殘缺, 其幸而不亡者, 唯二十八篇, 乃伏壁今文, 有歐陽夏侯三家之說. 孔壁古文, 有馬融鄭玄二子之註, 而伏學亡於永嘉, 孔學亡於唐代. …… 唯孔穎達正義及他經注疏, 其或引歐陽夏侯馬鄭之說者, 時見一斑, 則周鼎殷彝, 藜光粲然. 茲與一二文友, 採掇惟亟. 又如史記說文凡載尙書之文句, 搜別附合, 以考同異, 而左傳國語禮記論孟之中有或引書者, 【引二十八篇者】因亦採錄, 按次編列, 間附已見, 表示取舍之意. 合而名之曰古訓蒐略, 凡六卷.”

35) 같은 곳, 「尙書知遠錄序說」, “余執梅蔡二家之說, 與古訓所殘, 考其同異, 反復詳覈, 或是古而非今, 或捨故而取新, 其或諸說, 皆未當意者, 時附已見, 餘竝闕疑, 以遵夫子之戒. ……”

중시한 면모가 보인다. 또한 『사기』, 『설문』에 실린 『상서』 문구와 대조하였고, 『훈추좌씨전』·『국어』·『예기』·『논어』·『맹자』에 『상서』를 인용한 내용이 있으면 또한 채록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서지원록』에서는 『고훈수략』에서 채집한 훈고 자료들을 매색이나 채침의 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상서고훈지원록합편서설」과 「상서고훈범례」의 내용이다.

..... 이어서 복생의 집 벽에서 나온 진본 28편에서 돌이켜 살피고, 구양생·하후씨·마응·정현의 설을 수집한 것이 『고훈수략』이다. 이어서 매색·채침 두 사람의 설을 古訓과 비교하고 간간이 내 의견을 덧붙인 것이 『상서지원록』이다. 그러나 이 삼부작은 모두 유배지에서 편찬하였기 때문에 서적이 적어서 빠트린 것이 매우 많았다. 또 가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면 고기의 참맛을 본 것처럼 잘난척 스스로 기뻐하면서 辨訟하였는데, 그 어투가 매우 거칠고 공손하지 못하였다. 이제 24년이나 지났는데, 책을 펼쳐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여 언행에 소양이 없었음을 후회하게 된다. 내가 지은 육경과 사서에 관한 설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 『상서』에 관한 설이 가장 심하다. 『상서지원록』을 조목조목 나누어 『고훈수략』에 붙여넣고 합쳐서 한 책으로 만들었다. 그 가운데 근거 없는 소리와 어그러진 말은 대략 없었으나 심하지 않은 것은 간혹 그대로 두기도 하였으니, 이는 뒷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두 책을 합한 것인데도 제목을 그대로 『상서고훈』이라고 한 것은, 새로운 설을 덧붙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고훈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이다.36)

36) 같은 곳, 「尙書古訓知遠錄合編序說」, “繼而反求乎壁中眞本二十八篇, 蒐輯歐陽夏侯馬鄭之說者曰古訓蒐略. 繼而執梅蔡二家之說, 校比乎古訓, 間附以己見者曰知遠錄. 顧此三部, 皆於謫中編纂, 書籍旣少, 遺漏甚多. 且新得一鱗之味, 沾沾自喜所辨訟, 其辭氣多暴慢不恭. 如今二十有四年矣, 每一披閱, 愧焉內疚, 恤焉自傷, 悼言行之無素也. 所著六經四書之說, 無不然者, 其尤甚者書說也. 乃取知遠之錄, 條條摺裂, 附入于古訓之編, 合爲一部, 而其浮辭諄言, 概行鋤拔, 其或未甚, 間亦存之, 俾後人知余之爲如是人而已. 書雖兩合, 仍名之曰尙書古訓, 蓋新說雖附, 猶以古訓爲主也.”

다섯째, 무릇 古訓을 『尙書正義』에서 채록한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른 경의 주소나 다른 책에 수록된 여러 사람의 설에서 취한 경우에는 모두 출처를 주로 달았다.

여섯째, 『상서고훈』은 결락된 채 남아 있는 현대 유자들의 글만을 모은 것이고, 『상서지원록』은 매색과 채침의 풀이를 함께 논한 것이다. 지금 이미 합편하는 이상 또 근세 유자들의 설 가운데 채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수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간혹 내가 따로 입론한 것을 덧붙여 둔 것 또한 많다.³⁷⁾

다산은 「상서고훈지원록합편서설」에서 유배기 때 저술한 저술이 가지는 자료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자신의 立論이 거칠었음을 고백하였다. 이어서 『상서지원록』과 『고훈수략』을 합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하여 한 책으로 만들어서 옛 저술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상서고훈범례」에는 책을 쓴 원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출처 표기에 대해서는 『尙書正義』의 경우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고, 다른 자료는 모두 출처를 표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근세 유자들의 설 가운데 채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수록하였으며, 스스로 입론을 덧붙인 부분 역시 많다고 하였다.

2) 『尙書古訓』의 훈고학 방법론

이상에서 살펴본 다산의 자료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상서』 「요전」 1장을 대상으로 『고훈수략』, 『상서지원록』과 『상서고훈』의 내용을 대조해 보겠다. 우선 세 저술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⁸⁾

37) 같은 곳, 「尙書古訓凡例」, “一, 凡古訓之採於本經之正義者, 不標其所出, 其取之於他經注疏他書雜家者, 皆注所出. 一, 尙書古訓, 但輯漢儒之零文, 知遠錄, 兼論梅蔡之義. 今既合編, 又或近世儒說有可采錄者, 不免濫觴, 或另自立論者, 亦多附見.”

38) 『고훈수략』의 내용이 『상서고훈』에 수록된 경우 밑줄로 표시하였고, 『상서지원

『고훈수략』	『상서지원록』	『상서고훈』
<p>堯典 馬云：“堯，諡也。翼善傳聖曰堯。” ○說文云：“典，五帝之書也。從冊在丌上，尊閣之也。” 序曰：“昔在帝堯，聰明文思，光宅天下，將遜于位，讓于虞舜，作「堯典。」【『正義』云：“此序，鄭玄·馬融·王肅竝云孔子所作。”鄭云：“『書』以堯爲始，獨於昔在，使若無先之典然也。”○又云舜之美事，在於堯時。○鏞案，今之舜典(慎微五典以下)，亦本「堯典」。故序文如此。39)】</p>	<p>堯典 ○曰若稽古【梅云：“能順考古道而行之者，帝堯。” ○蔡云：“曰若者，發語辭。史臣將敘堯事，故先言考古之帝堯。” 蔡說，是也。然讀至帝堯絕句，猶夫未然，何者？詞例至「皐陶謨」而不通也。曰若稽古者，猶今之臣謹案，當於是絕句。【毛大可亦云】餘見前。【上己六】</p>	<p>堯典 馬融云：“堯，諡也。翼善傳聖曰堯。”【朱子曰：“死諡，周道也。『史』云，‘夏商以上，無諡，以其號爲諡。’又云，‘堯字，從三土，高也。’”】 ○許慎云：“典，五帝之書也。從冊在丌上，尊閣之也。” ○鏞案『春秋傳』：【昭十二】“楚左史倚相，能讀『三墳』『五典。』”即三皇五帝之書也。今唯此一典存。</p>
<p>曰若至上下【史云帝堯者放勳】 曰若稽古【『正義』云：“鄭玄信緯，訓稽爲同，訓古爲天，言能順天而行之，與之同功。”】</p>	<p>曰若稽古。【句】帝堯曰放勳。欽明文思安安，允恭克讓，光被四表，格于上下。【『本紀』，動爲勳。】 【『說文』同】『說文』，格爲假，『緯書』，思爲塞。【曰若稽古】疏云：“鄭玄信緯，訓稽爲同，訓古爲天，言能順天而行之，與之同功。”【若，順也。】 ○梅云：“能順考古道而行之者，帝堯。” ○蔡云：“曰若者，發語辭。史臣將敘堯事，故先言考古之帝堯。” ○錢時【南宋人】云：“曰若稽古爲句，是後代追敘之辭。”</p>	<p>曰若稽古。【句】帝堯曰放勳。欽明文思安安，允恭克讓，光被四表，格于上下。【『本紀』，動爲勳。】 【『說文』同】『說文』，格爲假，『緯書』，思爲塞。【曰若稽古】疏云：“鄭玄信緯，訓稽爲同，訓古爲天，言能順天而行之，與之同功。”【若，順也。】 ○梅云：“能順考古道而行之者，帝堯。” ○蔡云：“曰若者，發語辭。史臣將敘堯事，故先言考古之帝堯。” ○錢時【南宋人】云：“曰若稽古爲句，是後代追敘之辭。”</p>

록』의 내용이 『상서고훈』에 수록된 경우 기울임으로 표시하였다.
39) 해당 부분은 『상서고훈』의 「尙書序-堯典」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p>○鏞案 蔡說，是也。然讀至帝堯絕句，猶夫未然，何者？詞例至「臯陶謨」而不通也。‘曰若稽古者，夏史之筆【如今云臣謹按】，考古之典籍也。【毛大可亦云】顧炎武謂「堯典」亦夏書者，以此。【金履祥云：“若稽，追記之辭。放，大也。”】考訂 賈誼『新書』引帝堯曰：“吾存心於先古【案，此以稽古為堯德】，加志於窮民。”</p> <p>○『史記』，武帝立燕王，策曰：“朕承祖考，維稽古，建爾國家。”【褚先生曰：“稽者，當也。當順古之道也。”】</p> <p>○『漢書律曆志』云：“自伏羲畫卦，至黃帝堯舜而大備，三代稽古，法度章焉。”【此亦以稽古為堯事】</p> <p>○魏高貴鄉公曰：“稽，同也。古，天也。謂堯能同天。”【此鄭玄之義】</p> <p>○鏞案 偽註順考古道之解，遠自西京，其源遠矣。偽者深信其義，既於此註之如此，又撰『周官』之經，儼稱唐虞稽古，建官維百，則堯舜二帝，遂為稽古之主，不可辭矣。</p>
<p>放勳【馬云：“放勳，堯名。”】</p>		<p>【曰放勳】馬云：“放勳，堯名。”</p> <p>○梅云：“堯放上世之功化。”【放，仿也。】</p> <p>蔡云：“放，至也。功大而無所不至。”</p>

		<p>○皇甫謐云：“放勳，堯名，一云堯字。”</p> <p>○鏞案 當時之人，皆二字名，玄謂·昌意·橋玄·窮蟬·敬唐·句望之等，皆二字名。又如蒼舒·隕豷·禱戴·大臨·尙降·庭堅</p> <p>【『左傳』文十八，杜云：‘此垂·益·禹·皋陶之倫。’】之等，亦二字名。唯光顯者，多一字名。如譽·摯·堯·舜·禹·益·鯀·夔·龍·垂·棄之等，是也。唯皋陶·庭堅兩名，皆二字。又如仲容·仲達【亦八愷之二】·伯奮·仲堪·叔獻·季仲·伯虎·仲熊·叔豹·季狸之等【即八元，文十八。】，又似後世伯·仲爲字之法。又如丹朱·商均，皆二字名，而亦呼其一字曰胤子朱，今不可詳。要之，放勳·重華·文命，皆其二字名。堯·舜·禹，其一字名。或如後世之有小名·冠名，未必是謚號也。</p>
<p>欽明文思【馬云：“威儀表備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道德純備謂之思。”</p> <p>○鄭云：“敬事節用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慮深通敏謂之思。”】</p>		<p>【欽明文思】馬云：“威儀表備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道德純備謂之思。”</p> <p>○鄭云：“敬事節用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慮深通敏謂之思。”</p> <p>○鏞案 兩義皆出謚法，未必然。</p>
<p>允恭克讓【鄭云：“不懈於位曰恭，推賢尚善曰讓。”</p> <p>光被四表【鄭云：“言堯德光</p>		<p>【安安】『緯書』作晏晏，【『考靈耀』鄭註云：“寬容覆載，謂之晏晏。”</p>

<p>耀。及四海之外，至於天地，所謂大人與天地合其德，與日月齊其明。”見「周頌·噫嘻疏」</p> <p>『緯書』安安作晏晏。【『考靈耀』鄭註云：“寬容覆載，謂之晏晏。”○馮衍「顯志賦」云：“思唐·虞之晏晏。”第五倫上疏云：“體晏晏之姿。”】</p>		<p>○馮衍「顯志賦」云：“思唐·虞之晏晏。”【第五倫上疏云：“體晏晏之姿。”】</p> <p>【允恭克讓】鄭云：“不懈於位曰恭，推賢尚善曰讓。”</p> <p>○蔡云：“允，信，克，能也。”</p> <p>○鑄案 恭易偽，而讓難遂，故曰允，曰克。</p> <p>【光被四表】鄭云：“堯德光耀，及四海之外，至於天地，所謂大人與天地合其德，與日月齊其明。”【見「周頌·噫嘻疏」】</p>
<p>○『說文』：“格，作假。”</p>	<p>下甲二 格于上下【梅云：“至于天地。”○蔡云：“格至上天下地。”】</p> <p>上者天也，下者民也。蔡於「皐陶謨」達于上下節，訓之曰「上天下民」，於此不得異釋也。得天下之歡心，以事上帝者，二帝三王之大義，不可沒也。格者，孚感也。</p>	<p>【格于上下】梅云：“至于天地。”【蔡說同】</p> <p>○案 四表上下，以為六合，故自鄭然矣。竊謂，上者天也，下者民也。蔡於「皐陶謨」達于上下節，訓之曰「上天下民」，此不可異釋也。格者，孚感也。</p>

앞부분에 ‘堯典’에 대한 훈고가 수록되어 있고 이어서 「요전」 1장에 대한 훈고가 제시되어 있는데,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상서고훈』으로 합편하는 과정에서 다산이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에 수록된 훈고를 『상서』 원문의 순서별로 재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堯典’의 훈고에 대한 『고훈수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馬云：“堯，諡也。翼善傳聖曰堯。”

○說文云：“典，五帝之書也。從冊在丌上，尊閣之也。”

『고훈수략』에서 다산은 ‘堯’에 대한 마옹의 훈고와 ‘典’에 대한 『설문』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상서고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馬融云：“堯，諡也。翼善傳聖曰堯。”【朱子曰：“死諡，周道也。『史』云，‘夏商以上，無諡，以其號爲諡。’又云，‘堯字，從三土，高也。’”】

○許慎云：“典，五帝之書也。從冊在丌上，尊閣之也。”

○鑄案『春秋傳』：【昭十二】“楚左史倚相，能讀『三墳』·『五典』。”卽三皇·五帝之書也。今唯此一典存。

다산은 ‘堯’에 대한 마옹의 훈고 다음에 朱子の 설을 덧붙여 수록하였다. 주자의 설은 『禮記』 ‘檀弓’의 “죽으면 시호로 부르는 것은 周나라의 도이다.[死諡，周道也.]”에 대한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堯는 시호가 아니라 이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⁴⁰⁾ 주자는 堯, 舜, 禹는 이름일 뿐이지 시호가 아니라고 하였고, 그 근거로 우선 하나라와 은나라 때에는 지금의 시호법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堯, 舜, 禹의 뜻을 풀이하며 이러한 뜻을 시호로 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였으며, 미천할 때 불렀던 이름을 죽은 뒤에 시호로 삼을 이치 또한 없다고 하였다.

『고훈수략』에서는 마옹의 훈고만 실어놓았지만, 『상서고훈』에서 마옹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자의 설을 덧붙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 다산은 따로 견해를 제시하진 않았으나, 뒷부분에서 堯를 시호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주자의 설과 일치하는 주장을 펼쳤다.

‘典’에 대해서는 『고훈수략』과 마찬가지로 『설문』의 내용을 전재하였

40) 해당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朱子語類』卷87, “死諡周道也。史云夏商以上無諡，以其號爲諡，如堯舜禹之類，看來堯舜禹爲諡也，無意義。堯字從三土，如土之堯然而高，舜只是花名，所謂顏如舜華之舜。禹者獸跡，今篆文禹字，如獸之跡。若死而以此爲諡號也，無意義。況虞舜側微時，已云有鰥在下曰虞舜，則不得爲死而後加之諡號矣。看來堯舜禹，只是名非號也。”

다. 이어서 案說을 덧붙여서 「요전」이 『춘추좌씨전』의 기록에 나오는 『三墳』·『五典』 중 하나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요전」 1장의 원문에 대한 훈고가 나온다. 「요전」 1장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曰若稽古，帝堯曰放勳，欽明文思安安，允恭克讓，光被四表，格于上下。

우선 ‘曰若稽古’에 대한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의 내용이다.

『고훈수략』

曰若至上下 【史云帝堯者放勳】

曰若稽古 【『正義』云：“鄭玄信緯，訓稽爲同，訓古爲天，言能順天而行之，與之同功。”

『상서지원록』

「堯典」○曰若稽古 【梅云：“能順考古道而行之者，帝堯。”○蔡云：“曰若者，發語辭。史臣將叙堯事，故先言考古之帝堯。”

蔡說，是也。然讀至帝堯絕句，猶夫未然，何者？詞例至「皐陶謨」而不通也。‘曰若稽古’者，猶今之臣謹案，當於是絕句。【毛大可亦云】餘見前。

『고훈수략』에는 帝堯에 대한 『사기』의 기록과 정현의 해석이 채록되어 있다. 『상서지원록』에는 매색과 채침의 설이 실려있는데, 채침의 설은 정현의 해석과 다르다. 이어서 다산은 채침의 설을 옹호하는 동시에 ‘帝堯’까지 絕句한 것은 맞지 않다고 하였고, 모기령 역시 그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상서고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曰若稽古。【句】帝堯曰放勳。欽明文思安安，允恭克讓，光被四表，格于上下。【『本紀』，勳爲勛。(『說文』同)『說文』，格爲假。『緯書』，思爲塞。】

【曰若稽古】疏云：“鄭玄信緯，訓稽爲同，訓古爲天。言能順天而行之，與之同功。”【若，順也。】

○梅云：“能順考古道而行之者，帝堯。”

○蔡云：“曰若者，發語辭。史臣將敘堯事，故先言考古之帝堯。”

○錢時【南宋人】云：“曰若稽古爲句，是後代追敘之辭。”

○鏞案 蔡說，是也。然讀至帝堯絕句，猶夫未然，何者？詞例至「皐陶謨」而不通也。‘曰若稽古’者，夏史之筆【如今云‘臣謹按’】，考古之典籍也。

【毛大可亦云】顧炎武謂「堯典」亦夏書者，以此。【金履祥云：“若稽，追記之辭。放，大也。”】

考訂 賈誼『新書』引帝堯曰：“吾存心於先古【案，此以稽古爲堯德。】，加志於窮民。”

○『史記』，武帝立燕王，策曰：“朕承祖考，維稽古，建爾國家。”【稽先生曰：“稽者，當也。當順古之道也。”】

○『漢書·律曆志』云：“自伏羲畫卦，至黃帝·堯·舜而大備，三代稽古，法度章焉。”【此亦以稽古爲堯事】

○魏高貴鄉公曰：“稽，同也。古，天也。謂堯能同天。”【此鄭玄之義】

○鏞案 偽註‘順考古道’之解，遠自西京，其源遠矣。偽者深信其義，既於此註之如此。又撰『周官』之經，儼稱‘唐·虞稽古，建官維百’，則堯·舜二帝，遂爲稽古之主，不可辭矣。

『상서고훈』에는 우선 「요건」 1장의 전체 원문이 제시되어 있고, ‘曰若稽古’에서 斷句해야 함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의 정현, 매색, 채침의 주석을 그대로 실어놓았으며, ‘曰若稽古’에서 斷句해야 한다고 한 南宋 錢時的 견해를 추가로 삼입하였다. 안설 부분에 顧炎武의 『日知錄』 내용을 실어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였으며, 金履祥의 설도 덧붙였다.

考訂 부분에서는 ‘稽古’를 堯德이나 堯事로 본 훈고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안설을 달아 評하였다. 이 부분에서 古訓이 틀렸다고 해서 이를 폐기하지 않고 수록한 다음 이러한 고훈이 나온 이유에 대해 분석한 다산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帝堯曰放勳’에 대한 『고훈수략』의 내용이다.

放勳【馬云：“放勳，堯名。”】

‘放勳’에 대한 마옹의 훈고가 제시되어 있다. 『상서고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曰放勳】馬云：“放勳，堯名。”

○梅云：“堯放上世之功化。”【放，仿也。】

蔡云：“放，至也。功大而無所不至。”

○皇甫謐云：“放勳，堯名。一云堯字。”

○鏞案 當時之人，皆二字名，玄囂·昌意·橋玄·窮蟬·敬唐·句望之等，皆二字名。又如蒼舒·隕鼓·禱戴·大臨·尨降·庭堅【『左傳』文十八，杜云：‘此垂·益·禹·皐陶之倫。’】之等，亦二字名。唯光顯者，多一字名，如嚳·摯·堯·舜·禹·益·鯀·夔·龍·垂·棄之等，是也。唯皐陶·庭堅兩名，皆二字。又如仲容·仲達【亦八愷之二】·伯奮·仲堪·叔獻·季仲·伯虎·仲熊·叔豹·季狸之等【即八元，文十八。】，又似後世伯·仲爲字之法。又如丹朱·商均，皆二字名，而亦呼其一字曰胤子朱，今不可詳。要之，放勳·重華·文命，皆其二字名。堯·舜·禹，其一字名，或如後世之有小名冠名，未必是謚號也。

다산은 『상서고훈』에서 마옹의 훈고 다음에 매색, 채침의 주석과 皇甫謐의 설을 함께 제시하고, 자신의 안설을 남겼다. 안설에서는 ‘放勳’은 堯의 두 글자 이름이고, ‘堯’는 한 글자 이름이라고 주장하며 『춘추좌씨』

전』의 비슷한 사례들을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반드시 시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며 앞부분의 '堯'에 대한 마옹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다산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제시된 주자의 설과 일치한다.

해당 부분은 다산 훈고학 방법론의 구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다산은 앞의 '堯'에 대한 훈고에서 『고훈수략』에 수록했던 훈고자료에 반하는 주자의 설을 『상서고훈』에 새로 수록하였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추가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며 이를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편찬하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자료를 『상서고훈』에서 보완하며 기존 훈고의 오류를 반박한 것이다.

또한 다산은 자신의 안설을 앞의 '堯'에 대한 훈고에서 제시하지 않고, '放勳'에 대한 훈고에서 제시하였다. 이는 '堯'가 한 글자 이름이고 '放勳'이 두 글자 이름이라는 것을 함께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배치를 통해 자신의 立論에 설득력을 제고하였다.

다음으로 '欽明文思'에 대한 『고훈수략』의 내용이다.

欽明文思 【馬云：“威儀表備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道德純備謂之思。”○鄭云：“敬事節用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慮深通敏謂之思。”】

'欽', '明', '文', '思' 각각에 대한 마옹과 정현의 훈고가 제시되어 있다. 『상서고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欽明文思】馬云：“威儀表備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道德純備謂之思。”

○鄭云：“敬事節用謂之欽，照臨四方謂之明，經緯天地謂之文，慮深通敏謂之思。”

○鏞案 兩義皆出諡法, 未必然.

기존 『고훈수략』의 내용에 다산의 안설이 추가되어 있다. 마옹과 정현의 풀이가 모두 諡法에서 나왔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에 대한 『고훈수략』의 내용이다.

允恭克讓 【鄭云: “不懈於位曰恭, 推賢尙善曰讓.”】

光被四表 【鄭云: “言堯德光耀, 及四海之外, 至於天地, 所謂大人與天地合其德, 與日月齊其明.”見「周頌·噫嘻」疏】

『緯書』安安作晏晏. 【「考靈耀」鄭註云: “寬容覆載, 謂之晏晏.” ○馮衍「顯志賦」云: “思唐·虞之晏晏.” 第五倫上疏云: “體晏晏之姿.”】

'允恭克讓', '光被四表', '安安'의 순서로 정현의 훈고가 제시되어 있고, '安安' 부분에는 後漢 馮衍의 훈고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상서고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安安】『緯書』作晏晏. 【「考靈耀」鄭註云: “寬容覆載, 謂之晏晏.”】

○馮衍「顯志賦」云: “思唐·虞之晏晏.” 【第五倫上疏云: “體晏晏之姿.”】

【允恭克讓】鄭云: “不懈於位曰恭, 推賢尙善曰讓.”

○蔡云: “允, 信. 克, 能也.”

○鏞案 恭易僞, 而讓難遂. 故曰允, 曰克.

【光被四表】鄭云: “堯德光耀, 及四海之外, 至於天地, 所謂大人與天地合其德, 與日月齊其明.” 【見「周頌·噫嘻」疏】

『상서고훈』에는 원문의 차례대로 '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의 순서로 재배치되어 있다. '安安'과 '光被四表' 부분은 『고훈수략』의 내용과 일치한다. '允恭克讓' 부분에는 채침의 주석이 추가되어 있고, 안설에서 다

산은 채침의 설에 대해 보충설명하였다.

다음으로 '格于上下'에 대한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의 내용이다.

『고훈수략』

○『說文』：“格，作假。”

『상서지원록』

格于上下 【梅云：“至于天地。”○蔡云：“格至上天下地。”】

上者天也，下者民也。蔡於「皐陶謨」‘達于上下’節，訓之曰‘上天下民’，於此不得異釋也。得天下之歡心，以事上帝者，二帝三王之大義，不可沒也。格者，孚感也。

『고훈수략』에는 '格'에 대한 『설문』의 훈고가 제시되어 있고, 『상서지원록』에는 매색과 채침의 훈고, 그리고 다산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다산은 上下를 하늘과 백성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채침 역시 「고요모」의 주석에서는 이와 같이 해석했다고 실증하며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格'은 '정성이 감통하는 것〔孚感〕'이라는 새로운 훈고를 제시하였다.

『상서고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格于上下】梅云：“至于天地。”【蔡說同】

○案 四表上下，以爲六合。故自鄭然矣。竊謂，上者天也，下者民也。蔡於「皐陶謨」‘達于上下’節，訓之曰‘上天下民’，此不可異釋也。格者，孚感也。

『상서고훈』에는 다산이 정현 이하 기존의 훈고학자들이 上下를 四海로 해석한 이유를 분석한 내용이 추가로 제시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古訓을 존중한 다산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고훈수략』, 『상서지원록』을 『상서고훈』과 대조함으로써 다산의 훈고학적 접근방식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훈고학이란 넓은 의미로는 어느 시대에나 사용되었던 경전해석 방법론이기도 하면서 좁은 의미로는 漢代의 학술 경향인 훈고학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다산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겸해서 사용하면서도 좁은 의미로의 한대 훈고학에만 치우친 당시 훈고학의 경향을 비판하였다. 또한 훈고학의 두 가지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였는데, 첫째, 한대에 전수한 훈고가 본래의 뜻이라고 기필할 수 없다는 점과 둘째, 본의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글자 뜻풀이와 자구의 해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의식 위에서 성립된 다산의 『상서』 훈고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다산은 기본적으로 古訓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동시에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역시 견지하고 있었다. 『상서』 훈고 작업의 목적은 '存古'임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이를 통해 옛것을 바르게 알고 지금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다산은 『상서고훈』 合本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요전」 1장을 대상으로 합본 과정에서 보이는 다산의 훈고학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다.

원문의 순서에 맞게 재배치 한 부분, 斷句해야 할 지점을 명확히 표시한 부분, 서명 표시를 확실히 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기존 저

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부분이다.

새로운 학설을 추가로 제시한 부분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案說 부분에 顧炎武의 『日知錄』 내용을 실어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가장 주목된 부분은 古訓의 오류에 대해 분석한 부분이다. 다산은 鄭玄이나 다른 한대 훈고학자들의 주석 가운데 본인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빼지 않고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 고훈의 증거력이 부족하더라도 고훈인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다산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여러 글에서 다산이 강조했던 存古의 원칙과 일치한다.

『고훈수략』에 수록했던 훈고자료에 반하는 설을 『상서고훈』에 새로 수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한 부분 역시 확인하였다. 다산은 『고훈수략』과 『상서지원록』을 편찬하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자료를 『상서고훈』에서 보완하며 기존 훈고의 오류를 반박하였는데, 여기서 여러 훈고를 취사한 자료운용의 실제 면모가 드러난다. 해당 부분에서 다산은 본인의 案說을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立論에 설득력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1. 원전

『尙書』

『朱子語類』

『尙書古訓』, 규장각본.

『尙書知遠錄』, 규장각본.

『與猶堂全書 補遺』, 경인문화사, 1969.

『定本 與猶堂全書』,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2. 단행본

곽재이 지음, 이종진·이홍진 옮김(2012), 『훈고학 입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벤자민 엘먼 지음, 양희웅 옮김(2004),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전광진 編譯(1993), 『中國文字訓詁學辭典』, 東文選.

周大璞 지음, 정명수·장동우 옮김(1997), 『훈고학의 이해』, 동과서.

정약용 지음,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옮김(2020-2022),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1-5』, 학자원.

3. 논문

김문식(2007), 「『상서지원록』 필사본의 원문 비교」, 『다산학』 10, 다산학술문화재단.

김문식(2013), 「다산 정약용의 『尙書』 주석서 계열 고찰」, 『다산학』 23, 다산학술문화재단.

김성재(2018), 「정약용 『상서고훈』의 구성 체제와 案說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48, 한국학연구소.

김성재(2021), 「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지적 고찰」, 『다산학』 39, 다산학술문화재단.

김보름(2021),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유학연구소.

김소영(2019), 「丁茶山の 『孟子要義』 訓詁 研究」,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연중(2012), 「茶山の 經學 그 大略과 意義」, 『한국한문학연구』 50, 한국한문학회.

박상재(2002), 「茶山 經學의 訓詁學的 性格 研究」,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심경호(1991), 「다산 상서론에 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심경호(2012), 「다산 정약용의 문헌해석방법과 필롤로지」, 『다산학』 21, 다산학술문화재단.

양원석(2007), 「朝鮮 後期 文字訓詁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현규(2015), 「다산의 『서경』 인식」, 『동양고전연구』 59, 동양고전학회.

정병련(2000), 「『梅氏書平』의 考據學的 분석구조론」, 『다산학』 1, 다산학술문화재단.

단.

진역령(2016), 「『古文尙書』에 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인식과 고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평린(2005), 「茶山の 考據學에 관한 試論」, 『다산학』 6, 다산학술문화재단.

A Philological Approach of Dasan(茶山)'s 『Sangseokohun(尙書古訓)』

Byeon, Eun Mi *

『Sangseokohun(尙書古訓)』 is known to be the work that Dasan Jeong Yak-yong(1762-1836) has worked on for the longest time, and is also known that Dasan could not let go until the last moment of his life and continued to revise it. Dasan wrote his early three-part 『Sangseo(尙書)』 studies, 『Maessiseopyong(梅氏書平)』·『Kohunsuryak(古訓蒐略)』·『Sangseojiwonnok(尙書知遠錄)』 in his exile period, and after the exile period, he renovated 『Maessiseopyong』 and completed 『Sangseokohun(尙書古訓)』, combining 『Kohunsuryak』 and 『Sangseojiwonnok』.

This study examines Dasan's philological approach and its characteristics by contrasting 『Kohunsuryak』 and 『Sangseojiwonnok』 with 『Sangseokohun』.

Dasan basically had an attitude of emphasizing 'kohun(古訓)', while also maintaining a critical position on this. Dasan revealed that the purpose of studying 『Sangseo』 is 'jonko(存古)', and through this, he made it his ultimate goal to know the old correctly and apply it to the current situation.

Dasan did not exclude any commentaries of Jeonghyun(鄭玄) or other Han Dynasty(漢代)'s scholars even if there's something different from his opinions, and presented his analysis. The part that supplemented the new theory and refuted the errors of 'kohun' was also confirmed.

* Doctor's course,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 E-mail: di0567@hanmail.net

Key Words

Jeong Yak-yong, 『Sangseo(尙書)』, 『Yojeon(堯典)』, 『Sangseokohun(尙書古訓)』, philology.

논문접수일: 2022. 11. 13, 심사완료일: 2022. 12. 26, 게재확정일: 2022. 12. 30

